

구글, 대가 지불 않은 뉴스 콘텐츠로 연 47억 달러 수익

구글이 미국 언론사에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집한 뉴스 콘텐츠로 지난해 4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금액이 미국 전체 언론사들의 디지털 광고 매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 의회가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구글에 대한 언론사들의 수익 분배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미 언론사 단체인 뉴스미디어연합(NMA)은 전날 '구글이 뉴스 콘텐츠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구글이 뉴스 콘텐츠에 광고를 붙여 얻은 수익이 지난해 47억 달러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NMA는 미국내 2,000여 개 언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다.

NMA는 특히 "구글 검색 결과의 16~40%가 뉴스 콘텐츠에서 나온 것"이라며 뉴스가 구글의 사업모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구글은 "뉴스로는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언론사들에 주장해왔다. NMA는 "구글이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통해 트래픽을 몰아주긴 하지만

뉴스 콘텐츠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NMA는 또 47억 달러의 매출도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자들이 기사를 클릭할 때마다 구글이 수집해가는 개인정보의 가치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도. 뉴욕타임스는 구글이 뉴스를 제공하며 벌어들인 매출이 작년 미국 전체 언론사들의 디지털 광고 매출 51억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구글의 뉴스 관련 매출이 대략적이거나 알려지면서 미 의회의 디지털세 부과 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이나 뉴스로 벌어들인 수입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가 발표되자 구글은 즉각 반박했다. 구글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듯이 같은 단순한 계산법은 정확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또 "대부분 뉴스 검색 결과에는 광고를 띄우고 있지 않다"며 "이번 보고서는 구글이 제공하는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중국 제품 관세 25% 넘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25%보다 더 올릴 수 있다며 중국에 무역협상 합의를 압박했다.

11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3,000억 달러(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선택권이 있다)"며 "25% 관세나 25%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CNBC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으면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25%였다.

미 국무부는 이날 홍콩 정부가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중국이 지지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압박에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친중인 사인 캐리 램 홍콩 행정장관은 "이 법안은 홍콩의 정의를 지탱하고 홍콩이 다른 나라나 지역과 함께 범죄에 맞서 싸워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중국은 여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인터넷 포털 다음에 이어 네이버도 차단했다. 수도 베이징 등 일부 지역에선 지난달 30일부터 네이버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사이트의 접속은 지난 1월부터 차단됐다. 네이버 등 한국 사이트에 중국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어 이것이 중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중국 당국의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IT공룡 견제 나선 미 의회 반독점법 개정 전망

글·페이스북 등 거대 IT 기업이 약진하면서 미국에서 기업의 독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IT대기업 견제에 동의하면서 반독점법 개정에도 나설 전망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반독점법을 시행해 온 미국이 변화를 꾀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 정치전문매체 약시오스는 전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반독점법이 낡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새 반독점법을 제정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IT대기업의 독점) 현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양당이 포함된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통제되지 않은 소수 회사가 온라인 상거래, 통신, 정보 등에서 큰 힘을 갖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IT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사위는 "이같은 조사는 의회 사상 최초"라면서 "현 반독점법이 IT기업의 독점 문제를 제대로 짚고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독점법 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미 당국은 기업 간 경쟁을 해쳐 소비자 가격이 치솟거나 그 선택지가 현저히 줄어들 경우에만 철퇴를 날렸다. 특히 현 반독점법은 기업의 인수·합병을 주로 문제 삼고 있기에, 온라인 광고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페이스북·구글 등에는 반독점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심지어 대부분의 IT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기존 법에 따라 규제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약시오스는 전문가를 인용,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다시 정의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의회는 먼저 새 반독점법을 IT에만 적용할지 의료·농업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지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가격뿐만 아니라 거대 IT기업의 하청업체가 받는 보수도 독점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러튼 / 라미라다 / 헌팅톤비치 / 부에나파크 / 실비치 / 스텐톤 / 로스알라미토스 / 파운틴벨리 / 사이프레스 / 라팔마 / 브레아



싸고좋은 매물들을 로즈메리가 찾아드립니다!

가든그로브 (콘도)
방3/화3, 건평 약 1,510sf
2개로 완전분리된
마스터 베드룸
최고의 밝은 유닛
45만 9천

사이프레스 (타운하우스)
방3/화2, 건평 약 1,240sf
매력있는 타운하우스
그라나잇 조리대
좋은학군
49만 9천 9백

스텐톤 (콘도)
방3/화3, 건평 약 1,260sf
가격 대폭 인하
절호의 찬스
아치형 천장, 교통편리
48만 9천

스텐톤 (콘도)
방1/화1, 건평 약 1,300
단층, 1983년생
게이트이드
저렴한 단지 회비
31만

부에나 파크
방3/ 화2, 건평 1,690sf
새마루바닥
매력있는 단장된 집
59만 9천 9백

라미라다
방3/화2, 건평 약 1,500sf
바이올라 대학 가까운거리
좋은 환경
넓은 정원, 파킹랏
59만 9천 9백

헌팅톤비치
방4/화2, 건평 1,490sf
완전 리모델링
도보거리좋은학군
넓은 주차장
74만 9천

애나하임
방3/화2, 건평 약 1,220sf
새지붕, 새카펫
편리한 샵핑몰
큰 파킹랏
58만

파운틴 벨리(콘도)
방2/화1, 건평 1880sf
12년된 새콘도
저렴한 관리비
문화시설 완비
38만 9천

테메쿨라
방4/화3, 건평 약 1,600sf
높은 천장
아주 저렴한 관리비
2001년생으로 새집같은
41만 5천

Rosemary Hur
로즈메리 허
Realtor® | DRE #01967942
714.334.2292
O. 714.537.1111
realtorrosemary3819@gmail.com